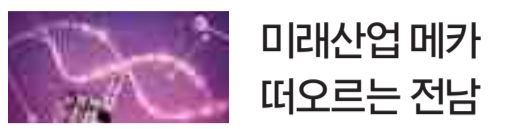


2050년까지 철강·석유화학·조선업 탄소배출 80% 줄인다



미래산업 메카 떠오르는 전남

<3>주력산업 고도화 경쟁력 향상

전남도가 미래산업과 함께 기존 주력산업인 철강·석유화학·조선의 고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생산액, 수출액 등 전남도의 각종 경제지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산업의 미래경쟁력이 앞으로의 전남 발전을 계속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융복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9년 통계로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3대 주력산업의 10인 이상 도내 기업은 각각 294개, 250개, 231개 등 785개로, 전체 도내 공산품 생산기업(1798개)의 43.6%, 종업원은 7만 2102명으로, 전체(9만1971명)의 78.5%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은 103.4조원으로, 전체(112.6조원)의 91.8%, 수출액은 315.6억 달러로, 전체(326억 달러)의 97.0%에 달한다. 따라서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을 더욱 육성·성장시키

포스코 그린수소 500만t 구축 이차전지·탄소중립 업그레이드

여수산단 등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이산화탄소 플랫폼' 구축 등 민선7기 프로젝트 속속 가동

는 것이 전남 발전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인 셈이다.

◇수소 이차전지, 탄소중립, 대체재 등으로 업그레드 나서=전남도는 최근 포스코, 광양시와 함께 전남이 국가 그린수소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한 '수소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 광양시, 포스코는 ▲수소 버스화물차 특수충전소 및 수소출력센터 구축운영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및 수소 시범도시·특화단지 조성 ▲그린수소(암모니아) 도입 연계 인수 터미널 구축 ▲수소산업 전환을 통한 탄소저감 활동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공동 협력하게 된다. 포스코가 '글로벌 메이저 수소기업'으로 거듭

나 신속한 수소환원제철공법으로의 공정 전환, 2050년까지 그린수소 500만t 생산체제 구축, 수소 사업 부문 매출 30조원 달성 등에 나서는데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전국 지자체로 처음으로 '2050 전남도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전남지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를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28개 세부사업에 7220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25%, 2050년까지 80%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목표다.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로 재도약 기반 마련=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광양국가산단, 울촌1산단, 여수-광양항을 연계하여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 규모의 4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국비(809억원)가 확보된 21개 사업에 대해 우선 착수했다.

먼저, 광양만권 산단은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한 '저탄소 산단'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70억원), 석유화학 폐부생가스 활용 발전사업(2,200억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사업(61억원)이 대표적인 '저탄소

산단' 사업이다. '저탄소 산단'과 더불어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의 핵심전략은 '지능형 산단'이다.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258억원), 스마트 항만물류 및 SCM 시스템 구축(225억원),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88억원), 지능형 공용 파이프랙 구축(700억원)등 ICT와 AI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 산단으로 광양만권 산단이 변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산단으로 변신하고자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여수복합문화센터(100억원), 활력있고 아름다운 산단거리 조성(20억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조성(135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526억원) 등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전남도가 계획한 사업이 순항하면 광양만권 산단은 '산업, 공간, 사람'이라는 산업단지 3대 구성요소의 혁신을 통해 친환경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민선 7기 주력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속속 가동=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을 혁신하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이들 주력산업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219억

여원을 투입한 '미래신성장동력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해 32종의 시험분석 장비와 2종의 시제품 제작 지원 설비 등을, 2020년부터 4년간 169억여원을 들인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 개발 실증기반 조성'을 통해 관련 장비 14종을 갖춰가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IoT(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여수산단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37억원, 주력산업의 소재·부품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는데 258억원,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기반을 구축하는데 308억원이 각각 예정돼 사업이 추진중이다.

광양 혁신산단에서는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구축(사업비 110억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기반 구축(130억원),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197억원) 등의 프로젝트가, 순천 해룡산단에서는 수송기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157억원),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207억원) 등의 프로젝트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 주순선 전략산업국장은 "전통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산업을 주도할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심진흥원 출범 8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김중식 목포시장, 권오영 여수시장, 신우원 원도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등 참석자들과 함께 목표 한국심진흥원 출범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노후·고위험 농어촌민박시설 안전 강화

전남도, 이달말까지 집중 점검

전남도가 '국가안전대전진단' 기간인 10월 말까지 노후·고위험 농어촌민박 시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대전진단은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생활 속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 첫 도입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가 선정한 올해 농어촌민박 분야 중점 점검 대상은 건물 노후, 사고 이력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민박업소 31곳이다.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소방, 전기, 가스 등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시설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정밀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화기 등 소방설비와 유도 등 경보설비 설치·작동 상태 ▲규격 전선 및 문 어발 배선 사용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전기설비 상태 등이다.

또 ▲중간밸브·호스의 설치 및 배기통 재료의 적정성 등 가스설비 상태 ▲창문 정상 개폐, 내·외부 마감재 안전상태 여부를 비롯한 건축설비 등 관리 상태 ▲마스크 착용, 발열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상태도 살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야생동물 연 447마리 구조...33% 자연 품으로

조류 87%, 포유류 11% 차지

광주에서 연간 야생동물 450마리 안팎이 구조돼 3마리 중 1마리는 자연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설인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2019년 1월 센터 개소 후 107종, 1230마리 야생동물이 구조됐다. 첫해 249마리, 지난해 481마리, 올해 9월까지 500마리로 연간 평균 447마리다.

조류가 1067마리(86.7%)로 가장 많았으며 포유류 134마리(10.9%), 파충류 29마리(2.4%) 등이었다. 수달, 수리부엉이, 독수리, 참매, 새매, 붉은박쥐, 하늘다람쥐, 삼 등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동물 20종, 174마리도 포함됐다.

구조 원인은 서식지 파괴 등으로 어미를 잃은 사례 495마리(40.2%), 차량 충돌·끈끈이 부착·질병

474마리(38.5%), 도살된 건물 유리창과 방울벽 등 충돌 261마리(21.2%) 등이었다.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쳐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아간 개체는 403마리(32.8%)로 3마리 중 1마리에 약간 못 미친다.

회복 불능 상태로 구조돼 죽거나 눈, 날개를 심하게 다친 새는 인력사한 경우도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배성열 광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건물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나 붙여도 새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어린 동물이 눈에 띄면 부상 정도를 관찰한 뒤 치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설 기관인 센터의 구조 활동 내용을 담은 책자 '날갯짓'을 발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정민곤 전 시의회 사무처장 임명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접견실에서 정민곤(사진) 광주 도시공사 사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10일부터 3년이다.

정 신임 사장은 지방고시 출신으로 광주시에서의 회 사무처장, 시민안전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교통건설국장, 정책기획관 등 주요 요직을 모두 거쳤다.

광주시는 현장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시와 밀접



한 소통으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도시 개발, 산단 조성, 주택 사업, 도시 재생 등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맡은 광주 핵심 공기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